

'전북 학생의회' 출범 가시화

도교육청, 제1기 학생의원 공개 모집... 27일까지 교육정책 제안·심의, 학생인권 보장 역할 등 담당

전북학생의회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제1기 전북학생의회 의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북학생의회는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것으로,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고 학생 참여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모집하는 인원은 10명으로,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초등학생은 5~6학년, 중·고등학생은 1~3학년으로 대상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오는 27일까지 도교육청 7층 민주시민

교육과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063-220-9414), 이메일(star1756@jbedu.kr)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오는 31일 공개추첨을 거쳐 2월 2일 선정 결과를 안내하고, 2월 21~23일 선정위원 워크숍을 거쳐 3월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전북학생의회는 공개모집 인원과 별도로 14개 교육지원청이 추천하는 40명을 포함해 총 50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전북학생의회는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 및 심의 △학생 자치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및 심의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제안 △학생의회 및 분과위원회 개정에 관한 사항 △그밖에 의장 또는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심의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학생의회는 학생들이 교육정책 제안·검토,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하고, 학생자치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이라며 "우리 학생들이 학생의회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산학연협력 성과물 '한자리에'

전북대 'JBNU 산학연협력 페스티벌' ... 12~13일 개최 인력양성·기업지원 프로그램 우수성과 전시 등 진행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12~13일 양일간 2023 JBNU 산학연협력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앙도서관과 뉴시스센터 등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부터 3단계 사업을 기술혁신선도형 유형으로 시작한 전북대 LINC 3.0 사업단이 한 해 동안 수행한 우수한 산학연협력 성과를 전시하고 홍보하는 자리다. 인력양성 프로그램 우수성과 전시, JBNU 패밀리마켓 라이브커머스, 기업지원프로그램 우수성과 전시, 산학연협력포럼으로 구성, 참가자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인력양성 프로그램 우수성과 전시는 전북대가 운영한 캡스톤디자인, 표준형 현장실습, 창업 동아리 운영의 성과로 채워진다. 중앙도서관 로비에 마련된 특별 전시장에 2022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산학연계 교육과정의 학생 성과물이 전시된다. 이외에도 전북대학교 창업동아리 '와그라드', '두잇두잇', '네이버' 등 특색있는 창업동아리 제품 전시와 동시에 판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JBNU 패밀리마켓 라이브커머스는 전북대 가족화사의 우수 제품을 라이브커머스로 판매하는 행사를 12일 오후 2시와 4시, 그리고 13일 오전 11시와 오후 4시에 진행된다. 참여 가족화사는 총 4개로 두지포크, 멜리앤스, 파뽏하게, 서동푸드로 각각 돼지고기 선물세트, 저탄소 한우 선물세트, 평점질 삼각구운, 양념잡쌀/갈비찜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기업지원 프로그램 우수성과 전시와 산학연협력포럼은 13일 오전 10시부터 뉴시스센터 특별 전시장과 동행홀에서 진행된다. 실크로센터 특별 전시장에서 진행되는 기업지원프로그램 우수성과 전시는 전북대의 교육과 기업이 공동으로 수행한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의 우수 성과를 전시하고 더불어 한옥마을에 위치한 전북대 지식기반 산업진흥원의 산학협력 플랫폼에 전시되고 있는 전북대 우수 산학협력 성과 전시물을 초청해 전시하는 행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송철규 단장은 "대학과 기업과 지역이 함께 기술을 혁신하고 선도, 그리고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각각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며 "전북대와 전라북도가 가진 혁신의 역동성을 전시하고 공유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대학교 LINC 3.0 사업단 홈페이지(https://linc.jbnu.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전북 도내 4년제 일반대학 중 취업률 '최고'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2022년 취업률이 도내 4년제 일반대학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10일 우석대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가 최근 대학알리미를 통해 2020년 8월부터 2021년 2월 졸업자 기준의 취업률을 공개했다. 이번 공시에서 우석대는 65.5%를 기록해 전북지역 4년제 일반대학(졸업생 1000명 이상) 평균인 60.56%보다 상위했다. 우석대는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와 진로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LINC 3.0 사업단과 창업지원단 등이 협력해 학생들의 현장 실무 능력을 극대화하고,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위한 진로취업전담교수와 평생지도교수제 운영을 통한 다채로운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남천현 총장은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화된 산학협력 인프라와 교육시스템이 높은 취업률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방향을 조기에 수립하고, 취·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2023학년도 평준화일반고 학교배정 공개추첨회. 서거석 교육감이 10일 오후 2시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 2023학년도 평준화일반고 학교배정 공개추첨회에 참석, 학교배정 공개추첨을 하고 있다. 이날 공개추첨회에는 추천위원을 비롯해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등 37개 시·군·구 교육청, 학생과 학부모 1000여 명이 참여했다. 한편 학교배정 발표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출신중학교 및 전북고입전형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2023학년도 초등 신입생 예비소집 결과

전북 소재불명 아동 없어

취학대상 1만2905명 중 598명 불참... 전원 소재 파악

2023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결과 전북지역 소재불명 아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집계 결과,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은 전년 대비 1,339명 감소한 1만2,905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1만2,307명(95.4%)이 예비소집에 참여하고, 나머지 598명(4.6%)은 불참했다. 이중 취학유예·면제, 해외 거주, 해외유학, 조기 입학 등으로 460명이 불

참했고, 전학예정자가 7명이다. 또 예비소집에는 불참했지만 해당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확인된 인원이 30명이고, 경찰과 주민자치센터의 협조를 통해 전화상 소재가 확인된 인원은 37명으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없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학교와 읍·면·동 주민센터, 경찰서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생 소재를 모두 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초등교사 돌봄 업무 이관 약속 지켜야"

전교조 전북지부

전교조 전북지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등교사들의 돌봄 업무 이관을 위해 그동안 5,542명의 서명, 300여 명의 전폭 교사 결의대회, 지방정부의 14일간 단식 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거석 교육감으로부터 당선 즉시 돌봄 업무를 이관하기로 약속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3차에 걸친 전북의 돌봄 시간 연장 관련 협의회가 끝이 났다. 회의 결과 현행 돌봄교실을 1시간 확대해서 5시간 운영하고, 돌봄전담사들의 행정업무를 위해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했다. 이는 서거석 교육감으로부터 당선 즉시 돌봄 업무를 이관하기로 약속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3차에 걸친 전북의 돌봄 시간 연장 관련 협의회가 끝이 났다. 회의 결과 현행 돌봄교실을 1시간 확대해서 5시간 운영하고, 돌봄전담사들의 행정업무

를 위해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했다. 이는 서거석 교육감으로부터 당선 즉시 돌봄 업무를 이관하기로 약속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3차에 걸친 전북의 돌봄 시간 연장 관련 협의회가 끝이 났다. 회의 결과 현행 돌봄교실을 1시간 확대해서 5시간 운영하고, 돌봄전담사들의 행정업무

호원대, 진로심리상담센터 수기공모전 시상식 개최

호원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는 지난 9일 2022학년도 진로심리상담센터 수기공모전 시상식을 온라인(Zoom)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운영했던 프로그램 중 1가지 이상 참여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참여 수기를 공모해 심사위원 3명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20편의 작품 중 16편의 우수작품을 선정했다. 접수된 작품에서 학생들은 심리검사, 마음방역챗봇, 원데이클래스 행복코디네이터, 랜선서포터즈 등의 프로그램 42건에 참여했고, 특히 학생 1명이 최대 4가지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전에 참여한 학생들은 "해내지 못한 것 같아 쉬기만 했던 일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등 대학생활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너는 존재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미지 센터장은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마음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마음 건강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 운영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시도 주제 발표 후 자유토론 방식... 매월 1회 정기 개최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매월 국내·외 교육정책 동향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전북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북교육청 정책부서와 학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에 안내해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시도하는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은 발표자가 주제에 대해 발표한 후 참여자와 자유롭게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토론 방식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이는 최신 교육정책의 흐름을 조명하는 교육동향 분석 내용에 대해 교육공공체와 더욱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1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은 오는 11월 오후 2시 도교육청 본관 1층 놀품자에서 개최된다. 한숙경 소장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이 국내·외 주요 교육정책 흐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2023년에도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정책을 선제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전북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연구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외국인 유학생·한국인 가정을 하나로

전주대 국제교류원, '호스트 패밀리 결연식' 열어

전주대학교 국제교류원은 지난 6일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가정을 맺어주는 호스트 패밀리(Host Family) 결연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 행사는 전주장동교회(김태영 목사) 성도 67명과 외국인 유학생 6명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인연이 돼 서로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대는 지난 5년간 200여 명의 유학생과 지역사회 구성원과 인연을 맺도록 지원했다. 호스트 패밀리는 홈스테이처럼 유학생이 함께 거주하지는 않지만, 한국 가정과 연결된 유학생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가족처럼 관심을 갖고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며, 서로 간에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는 기회의 통로다. 이번엔 캄보디아 유학생과 인연을 맺은 박용철 씨(전주시 덕진구)는 "하루 같은 유학생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있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며,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부모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조호성 교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위촉

전북대학교 조호성 교수(수의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전했다. 위촉은 2024년 12월까지 2년이다. 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 부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대통령(의장)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자문회의와 정책 및 예산을 심의하는 심의회로 구성된다. 조 교수는 심의회의 생명의료전문위원회에서 심의회의에 상정되는 과학기술 및 R&D 관련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조 교수는 2010년부터 전북대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다수의 연구과제 수행과 함께 2020년에는 동식물 방역방제 유공 정부 포상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국가재난형 가축 질병의 방역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조호성 교수는 "수의사이자 생명·의료분야의 연구자로서 그간의 연구와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을 도출해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은성 기자

